

커뮤니티 기반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요인 고찰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을 대상으로-

이다영* · 정재현** · 박진욱***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 **부산대학교 대학원 ·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The Study on the key Factors for Community -Based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Lee, Da-Young* · Jeong, Jae-Hyeon** · Park, Jin-Wook***

**Dept. of Urban-Rural & Culture Research, Chungnam Institut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landscape conservation activity promotion process targeting the ‘Alassiasdeuli Community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which is carrying out continuous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ctivities led by local residents in the area of Yeohang Mountain, Yeohang-myeon, Haman-gun, Gyeongsangnam-do. Through this, the factors necessary to promote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ctivities led by residents were identified, and implications necessary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ctivities led by residents were derived. The first factor that allowed Alassiasdeuli to pursue resident-led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ctivities was the fact that an economically stable foundation was established before pursuing conservation activities.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based on continuous agricultural activities, and agricult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aspect. Accordingly, Alassiasdeuli had a small but regular income from the package business, and was able to carry out various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ctivities based on this. Second, within the community, a sense of purpose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was shared as a common value. It started with common values that were in line with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such as an economic community based on agriculture, indigenous seed conservation, and eco-friendly agriculture, and later, awareness of traditional agriculture and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was gradually established through members' continued empowerment and related experiences. It has been done. Third, various connections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ere established with residents, related 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on. We established cooperative relationships by recruiting local organizations and residents as active participants beyond program participation, and exchanged information and expanded the scope of activities by establishing networks with organizations such as the ‘Gyeongnam Darang-Non Network’. In addition, through connection with administration, we experienced various projects and ensured the sustainability of activities through support. Fourth, there was a keyman who could organize activities and control the scale of support projects, taking into account the awareness and capabilities of members. In particular, it is thought that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Secretary General was based on building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residents before Alassiasdeuli was formed. Therefore, in order for resident-led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ctivities to be continuously carried out, an organization must be formed centered on farmers, and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the organization, sharing of common values, and trust relationships among members are the basis, and the Sustainable activities can be promoted through various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on.

Key words :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Sustainability, Participation, Rice Terrace, Gyeongnam

Corresponding author : Park, Jin-Wook

Tel : +82-53-580-5775

E-mail : pjw@kmu.ac.kr

I. 서 론

1. 배경 및 목적

다랑논은 중산간 지역 경사지에 조성된 논을 일컫는 것으로 험준한 지형 조건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벼농사를 영위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농촌을 대표하는 경관 중 하나이다. 다랑논은 식량 생산이라는 1차적 기능 이외에도 홍수조절, 생물 다양성, 토양침식 및 산사태 방지 등 다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경남연구원, 2021). 또한, 다랑논은 자연환경에 순응한 삶의 모습으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남해군 가천마을 다랑논이 명승 제15호로 지정되었고, 세계적으로는 필리핀 루손(Luzon)섬 코르딜레라스의 다랑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더욱이, FAO는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농어업을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FAO가 인증한 86개 세계중요농업유산 중의 4개소가 다랑논과 관련되어 있다(2024년 4월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완도의 ‘청산도 구들장 논’이 2013년 제1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4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선우윤정, 2018).

최근에는 국가 차원을 넘어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다랑논을 보전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상남도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로서 산간·해안지역 곳곳에 약 18,000여 개 62,516ha의 다랑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로 밭(31.3%, 19,541ha)과 논(18.4%, 11,498ha)의 형태로 이용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경상남도, 2022). 경상남도는 다랑논을 보전하기 위해 본격적인 다랑논 보전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에는 ‘경상남도 다랑논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경상남도 농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2022년에는 ‘경남 다랑논 지역자원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랑논 지역자원화 공모사업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 주민 네트워크 활동 등 민간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보전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에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인 ‘경남 다랑논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2024년 현재 7개 마을 20여 명의 회원이 경남 다랑논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랑논은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고, 농기계 투입이 어려워 평야에 비해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랑논의 특성은 농촌지역 고령화·인구감소 현상과 결합하

여 농경지의 휴경화 및 황폐화를 가속화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라 정주환경 측면에서는 빈집 증가 및 생활서비스 저하, 생산환경 측면에서는 휴경지의 증가 및 난개발을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황환철, 2007). 특히, 국내 휴경지의 경우에는 1985년 0.9%에서 2016년에는 3.2%로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촌의 공익적·생태적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농지 기반이 붕괴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농촌진흥청, 2019). 휴경지의 증가와 농업의 영구 포기는 유럽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띠며(Christian Levers, 2018), 필리핀 코르딜레라스 다랑논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이르러 경작 활동의 영구 포기가 가장 많이 진행된 바 있을 정도로 농업 기반으로서 농경지의 소멸은 세계적 추세로 인식되고 있다(Ian Estacio, 2022).

그러나 다랑논은 자연환경에 순응한 인간활동의 결과물로서 계단식으로 전개되는 논 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넘어 관광개발과 산지 농업의 전환, 보전개발의 축이 동시에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환경적 추동 요인 규명을 통해 휴경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Ian Estacio, 2022). 일본에서는 농촌지역 황폐화를 막는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2019년 ‘다랑논지역진흥법’을 제정하여 ‘다랑논’을 농업적 측면에서 지역진흥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계승해야 할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경상남도, 2022). 하지만, 다랑논이 위치한 산간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매각 또한 어려워 휴경화 및 토지이용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 2005). 반면, 다랑논 보전활동도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 왔으나 보전활동의 지속성 확보라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남해 가천마을 다랑논의 경우에는 수익구조 중, 지속적인 경작활동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으로 전통적인 다랑논 경관의 보전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전활동이 농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명승 지정, 관광산업화 등 외부 자극에 의한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김동현, 2022). 농촌경관은 생산경관과 생활경관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농업생산 활동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경관보전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가 필수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박진욱 외, 2017). 또한, 다양한 보전활동은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마을 경관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거나 해당 지역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 또는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정수진, 2015).

따라서, 농업생산 환경이 불리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사회적 요인으로 휴경화 또는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다량논 지역의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주도의 의식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에서 지역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농촌경관 보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아라씨앗트리공동체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농촌경관 보전활동이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주민 주체의 농촌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농촌경관의 보전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의 활동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공동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광동(2014)은 상주 사례 마을에서 추진된 공동체 운동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안성, 지속가능성, 수용성 및 특징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공동체 내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대안운동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정란(2010)은 성미산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의 내부 주체 형성 과정과 마을 내 조직 간 연대활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을의 발전단계를 이주민 정착기, 지역사회로의 모색기 등 시계열적으로 분류하여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문미경(2023)은 경상남도 다량논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남해시 동고동락협동조합, 함안군 아라씨앗트리공동체영농조합법인 및 산청군 황매골생명살림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문헌조사를 통해 공동체 활동에 기반이 되는 지역자산의 필요성을 규명하였다. 김동현(2022)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남해 가천마을 다량논을 대상으로 전통경관 보전에 관한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천 다량이 눈 보존회’와 마을주민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경관의 변화 요인으로 보존회 관리범위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농업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도출했으며, 결과적으로 영농활동 수익창출을 통해 경관 보전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기술에 관한 숙련자 확보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 주도의 농촌경관 보전활동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주민활동 내용 및 그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자 문헌조사 및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 과정 등을 분석하여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요 요인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대상지 개요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여항산 일대를 대상으로 농촌경관 보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아라씨앗트리공동체영농조합법인(이하, 아라씨앗트리)’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아라씨앗트리의 주요 활동 무대는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와 주동리에는 여항산과 봉화산 사이의 주주골이다. 이곳은 다량논이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Figure 1).

주서리와 주동리의 전체 가구는 107가구이며, 총인구는 184명이고 이 중에서 농가는 70가구이다. 또한,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다른 농촌지역과 동일하게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주요 재배 작물은 다량논을 활용한 쌀재배가 50% 이상이며, 과수로는 단감 그리고 구황작물이 있다 (Table 1).

아라씨앗트리는 2011년에 지역주민들로 결성된 공동체 조직으로, 2021년에는 경상남도에서 관내에 위치한 다량논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한 ‘경남 다량논 네트워크’ 구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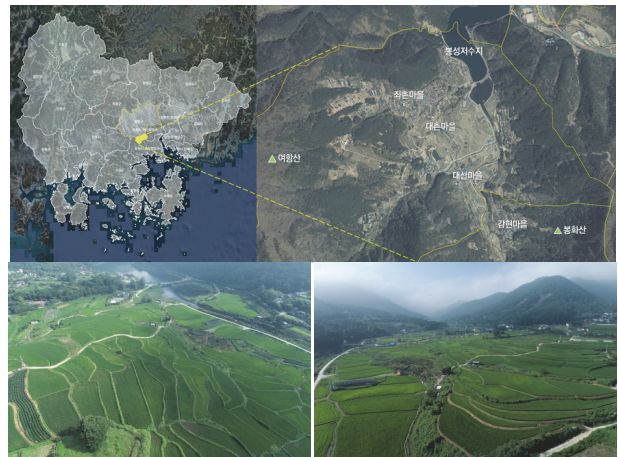


Figure 1. Study Area

Table 1. Status of Analysis Target Site

| Household | | | Population | Age distribution | | | |
|----------------------|------|-------------------------|------------|----------------------|-------|-------|---------|
| Total | Farm | non-Farm | | under 49 | 50~59 | 60~79 | over 80 |
| 107 | 70 | 37 | 184 | 30 | 39 | 82 | 33 |
| Agricultural Product | | | | | | | |
| 1st | | 2nd | | 3rd | | | |
| Rice (15ha) | | Sweet Persimmon (7.5ha) | | Emergency Crop (4ha) | | | |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경상남도 다량논 지역자원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다량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아라씨앗드리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상지인 주서리와 주동리 다량논의 경관 보전활동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아라씨앗드리를 대상으로 농촌경관 보전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주요 활동 내용 등을 조사, 분석하여 주민이 주체가 된 농촌경관 보전활동이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활동에 관한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핵심 관련자 심층인터뷰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기사 및 보고서를 통해 아라씨앗드리의 조직 결성과정, 활동 내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시계열 순으로 정리한 후, 심층인터뷰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Table 2).

현장조사는 2022년 6월 13일, 2023년 8월 5일, 2024년 2월 3일 3차례 실시하였고, 심층인터뷰는 2022년 6월 13일

(아라씨앗드리 정OO 사무국장, 김OO 대표 대상), 2023년 10월 21일(정OO 사무국장, 이OO 총무 대상), 2024년 2월 3일(정OO 사무국장 대상), 2024년 4월 28일(정OO 사무국장 대상)에 걸쳐 총 4회를 진행하였다. 2022년 최초 조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조사는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포함한 공동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한 공동체의 주요 활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하여 인터뷰 대상자에게 메일로 먼저 보낸 후, 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질문은 활동 참여자 현황,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조직 활동의 원칙,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외부 단체와 조직들과의 관계 및 활동 내용, 마을 기업 지정 후의 변화 및 효과, 다량논 공유 프로젝트 참여 동기, 참여 후 마을주민들의 변화 등 사전 조사 내용에 기반하여 각 활동 전후를 통해 공동체가 참여하게 된 계기,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 등을 조사하였다(Table 3).

또한, 문헌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아라씨앗드리의 최근 다량논 보전을 위한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활동의 주체인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able 2. Interview Question Composition

| Theme | | Question |
|---|---------------------------------|--|
| Before forming the organization | | 1-1. Key members(secretariat director) motivation to return to the rural village 1.2. Motivation for forming relationships among members 1-3. Purpose of forming the organization |
| Main activity | Economic activity | 2-1. Background of package business development 2-2. Main contents of package business 2-3. Effect of package business(economic activity) on members |
| | Landscape conservation activity | 3-1. Momentum and process for promoting landscape conservation activities (Terraced Rice Paddy Sharing Project) 3-2. Reactions from members and village residents following the promotion of activities |
| | Support project | 4-1. Main contents of support project 4-2. Matters to focus on when carrying out support projects |
| | Empowerment | 5-1. Changes in members before and after organization formation |
| Relationship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 | | 6-1. Partnerships within the region 6-2. Partnerships outside the region |

Table 3. Interview Process

| Date | Participants | Content | Feature |
|-------------|------------------------------------|---|---|
| 2022.06.13. | representative, Secretary General | Before forming the organization (opportunity, purpose, etc.), major activities | The 2nd Terraced Rice Paddy Sharing Project is being promoted and new support projects are being planned. |
| 2023.10.21. | Secretary General, General Affairs | Current status of support projects and changes in relationship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 | Promotion of project to turn rice terraces into resources |
| 2024.02.03. | Secretary General | Result of support project | Promotion of project to turn terraced rice fields into resources and completion of package project |
| 2024.04.28. | Secretary General | Impact and significance of activity results | |

III. 결과 및 고찰

아라씨앗드리의 공동체 형성 및 활동을 시계열 순으로 ①공동체 이해관계 구축 단계, ②조직 구성 및 활동 단계, ③외부 네트워크 구축 단계, ④조직 내부 확장 단계로 구분하여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Table 4 & Figure 2).

1. 공동체 이해관계 구축 단계(Building Relationship)

아라씨앗드리는 전국여성농민회 토종종자사업 언니네텃밭 꾸러미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년 구성된 공동체 조직이다. 아라씨앗드리가 태동하게 된 첫 번째 계기로는 환경보전운동으로 관계를 맺게 된 의식 있는 사무국장의 귀농(2002년)이 있다.

사무국장이 귀농한 배경에는 1990년대 당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던 ‘경남랜드 조성 사업’과 그에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다. 1993년 3월 경상남도는 도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여항산 일대에 경남랜드 건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주서리 주민 일부와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1994년 여항산보존회를 결성하였다. 여항산보존회는 여항산 일대에서 축제, 생태학교 등을 함께 추진하였는데,¹⁾ 이때 아라씨앗드리의 사무국장이 가톨릭농민회운동본부 소모임 활동의 일환으로 여항산 일대 경작지에서 농사를 경험하며 이 지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 본격적인 귀농으로 지역에 내려오게 되었으며 농업·농촌·환경보전에 대한 활동 또한 지역에서 이어졌다.

귀농 후 사무국장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며,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Table 4. Main Activity Details of Alassiasdeuli-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Year | Feature | Main contents | significance |
|------|---|---|--|
| 2002 | Activity Key Man Appears | Secretary General Jeong returns to farming | Start of eco-friendly rice farming |
| 2003 | Building relationships | Getting to know each other and forming trusting relationships | Empowerment before promoting Package Project Formation of interests among residents through census and native seed survey |
| 2004 | Creating an activity base | Haman Women Farmers's Association's campaign to protect native seeds | |
| 2005 | | | |
| 2006 | | | |
| 2007 | | | |
| 2008 | | | |
| 2009 | | | |
| 2010 | | | |
| 2011 | Organization formation Development of package business | Alassiasdeuli-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formed | Implementation of package business(organic) Growth period(cultivating competencies and community spirit) |
| 2012 | | Designated as a village enterprise | |
| 2013 | |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Women Farmers' Association's Sister's Garden Package Project | |
| 2014 | | | |
| 2015 | | | |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2019 | Promotion of projects through external proposals | Selected as a Community Support Agricultural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 Start of darang rice field conservation activities |
| 2021 | | Promotion of darang rice field sharing project | Expansion of external connections (administration, local schools, etc.) |
| 2022 | | Selected as darang rice field local resource contest project | |
| 2023 | Expansion of local-based activities linked to residents | Selected as a project to build an agricultural culture income model(1st year) | Expansion of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ctivities (integration of residents) |
| 2024 | | 2nd year | |

1) “환경 지킴이 여항산 보존회”, 부산일보, 1995.04.01., 2024.03.24. 접속,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950401000082#scr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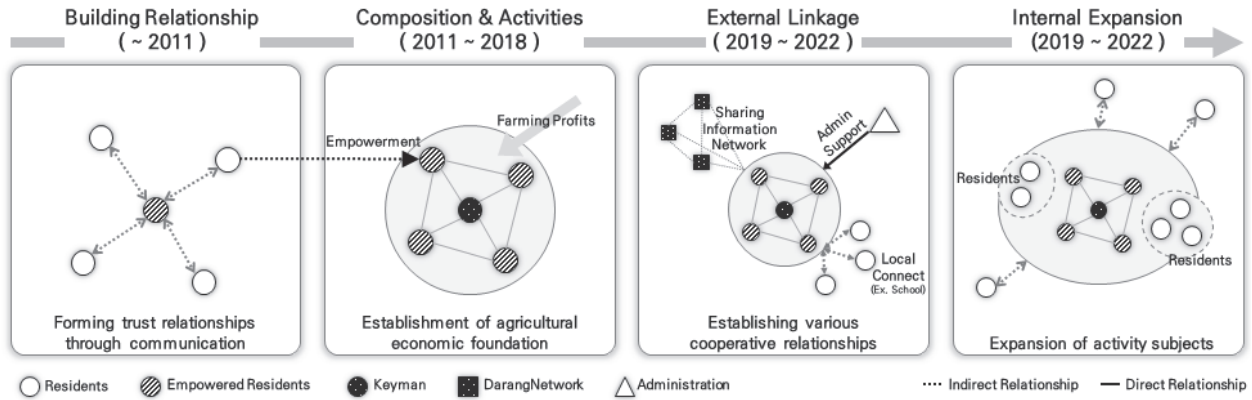


Figure 2. Development Process of Alassiasdeuli-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함안여성농민회에서는 토종유전자원 실태조사, 여성농민 1농가 1토종씨앗 심기 등²⁾의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³⁾을 전개 중이었는데, 사무국장도 이에 참여하였다. 토종씨앗에 대한 지역 실태조사의 경우 귀농여성농민들이 토착여성농민들과 씨앗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김효정, 2011).

“농촌에 들어와 먹고 살아야 해 아르바이트로 조사 사업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 지역의 어지간한 어른들은 다 알게 되는 거지. 이제 (토종)씨앗 채집하러 가면서 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씨가 이러이러한 거더라. 그게 제일 깊이 있게 만나는 거지.”

이를 통해 사무국장은 아라씨앗드리를 구성하기 전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주민들과 서로 알아갔으며, 향후 조직 구성과 사업 실행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작용을 했다. 이와 함께 마을에서 논농사를 지으며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로 정비 작업 등의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2. 조직 구성 및 활동 단계(Composition & Activities)

아라씨앗드리가 꾸러미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토종씨앗의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환경이 있다. 여항면의 경우, 다량논과 밭의 필지 규모가 크지 않아 시설재배가 어려우나, 다양한 종류의 작물을 소량생산하여 판매하기에

적합하였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여성 소농이 토종씨앗 작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언니네텃밭 꾸러미사업⁴⁾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무국장이 주축이 되어 여항면에 거주하는 여성농민 10여 명을 모아 아라씨앗드리를 구성하였다.

“이제 농민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성농민회를 만났고 그래서 여성농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여성농민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에 이게(꾸러미사업) 맞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여항(면)이 그나마 유일하게 시설재배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토종을 지키려면 소농들이 적합하거든요.”

초기에는 각자가 수확한 작물을 모아 일주일에 1회 꾸러미 포장 등 공동작업하여 꾸러미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라씨앗드리의 구성원은 꾸러미사업을 추진하며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역량강화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공동의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었다. 꾸러미사업 생산자공동체의 경우 생태적 생산 원칙에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므로(정은정 외, 2011), 이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정기적인 소득을 얻으며 농업 식량주권과 농촌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에 농업·농촌에 대한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조직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농산물을 매개로 한 외부와의 관계맺기 경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었다.

2) 김영미 기자, “토종씨앗 지켜 씨앗전쟁서 승리 -함안군여성농민회, 10개 읍면서 토종종자 보존사업 추진-”, 한국농정, 2009.02.15., 2024.05.07. 접속,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17>.

3)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이 지켜내는 토종씨앗”, 여성농업인신문, 2010.03.05., 2024.05.07. 접속, <http://women.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88>

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에서 2008년 토종씨앗 지키기사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한 제철꾸러미사업이다(정은정 외, 2011, pp314-315).



Figure 3. Alassiasdeuli-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Figure 4. Terraced Rice Paddy Sharing Project

3. 외부 네트워크 구축 단계(External Linkage)

언니네텃밭 꾸러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가 외부에 알려지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때 사업을 추진하며 아라씨앗드리에서 주안점으로 두었던 것은 현재 수행한 가능한 역량과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받는 것이었다. 2012년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서도 꾸러미사업에 필요한 작업장을 리모델링하고 고정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두부가공기계 등 기반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직이 함께 모여서 작업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주요 공간이 마련되었다. 2019년 경상남도의 공동체지원농업활성화지원사업 또한 기존 꾸러미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라씨앗드리의 사무국장인 고령의 여성 소농들이 추가 되어 구성된 조직의 특성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꾸러미사업과 연계된 생산자·소비자 공동행사, 포장·택배 등의 운영비와 홍보비 정도만을 지원받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공동체지원농업활성화지원사업의 경우) 첫 해 5천만 원을 했는데, 다른 데는 막 몇억씩 가져왔더라 ... 2차년도에 우리가 4천만 원을 받았어요. 왜 낮췄냐 하길래 필요한 만큼만 받고 싶었다고...”

이후 아라씨앗드리의 농촌경관 보전 활동의 시작은 2021년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 참여부터이다.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의 “경상남도의 다랑논 보전과 자원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경남 다랑논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로서 농경지와 전통농업방식의 보전과 홍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경상남도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대상지와 공동체를 찾던 중에 이전부터 토종씨앗 보전과 친환경농업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아라씨앗드리에게 참여를 권유하였고 이 권유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라씨앗드리는 전국여성농민회의 언니네텃밭 꾸러미사업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농업환경과 농촌경관 보전이라는 가치에 동의하여 조직의 자체 자원으로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의 대상지는 조직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논으로 하였고, 참여

자는 함안군 내·외부에서 모집하였다. 함안군 내에서는 여항면에 위치한 외암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연계하여 학생과 그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상남도 행정의 지원을 받아 국토안전관리원, 아이쿱생협 등 외부 참여자들도 모집하게 되었다. 아라씨앗드리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논농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친환경(우렁이농법)으로 손모내기, 손벼베기 등 전통농업지식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별도의 지원금은 받지 않았으나, 약 10년간 이어온 꾸러미사업으로 경제적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안정된 기반이 있었고, 아라씨앗드리가 지속해 온 토종씨앗 보전 등의 주요 활동 내용과 경상남도가 추진하고자 한 전통농법 보전 및 홍보라는 목적이 일정 부분 일치했기 때문에 아라씨앗드리는 큰 거부감 없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른들은 (처음에) 이 종자가 토종인지, 관행인지, 개량종인지 그게 개념이 없으셨거든요. 그때는 신품종이 나오면 무조건 신품종 종자를 따라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토종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시고 또 종자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 기존 종자를 지켜야 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요.”

또한, 인터뷰에서 아라씨앗드리 내부적으로는 전통농법과 농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외부와 교류하여 그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의식도 밑바탕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게(다랑논 공유 프로젝트) 새로운 제안이기도 했고, 이게 지역화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우리 공동체가 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끼리는 되게 재밌고 우리끼리는 돈도 좀 되고 이제 좋아. 근데 이게 어떻게 지역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지역과 연계할 수 있을까.”

경관과 관련된 두 번째 활동은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 참여를 바탕으로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교류활동이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은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를 함안군을 포함한 5개 지역(밀양시, 거제시, 남해군, 산청군)에서 진행하였고, 다랑논 보전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5개 지역의 주체 조직들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5개 지역의 주체

들은 ‘경남다랑논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⁵⁾ 이후 2022년에는 경남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에 선정된 남해군, 통영시의 보전 조직 2곳이 합류하여, 2024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아라씨앗드리의 경우, 토종씨앗 보전은 발작물 중심이었으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토종벼 씨앗에 대한 지식과 벼농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고, 그 이후에 추진한 사업에서는 토종벼 전시는 조성, 토종벼해설사 교육 등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4. 조직 내부 확장 단계(Internal Expansion)

본격적으로 아라씨앗드리와 지역의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진 것은 ‘2022년 다랑논 지역자원화 공모사업’이다. 2021년 시작한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는 아라씨앗드리의 중심 활동 중 하나로 지속되었는데, 2022년에는 경상남도에서 농업유산이자 지역유산인 다랑논을 보존하고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2022년 다랑논 지역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랑논 경관 보전활동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의 논농업 체험 프로그램에서 토종벼 씨앗을 활용하여 공유 다랑논에 경작하고, 2021년에 이어서 외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생태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촌경관 보전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다. 또한, 외부 지역의 참여자가 마을에 방문하는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는 작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하였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을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라씨앗드리는 지속가능한 다랑논 보전을 위해서는 다랑논의 가치와 중요성을 기존 마을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다랑논을 자원으로 마을의 소득화모델을 추진한 농촌진흥청의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다랑논 지역자원화 공모사업과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행정에서 공감하여,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의 제안으로 다랑논을 농경문화자원으로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기존 사업들은 아라씨앗드리로 지원하였으나 이 사업의 경우 ‘함안군 여항면 주주골(주서리 대신·대촌마을)’에 해당하는 마을 단위로 신청하였다. 당시 아라씨앗드리 내에서는 다랑논 농사를 지속하고 농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동 저수지 사용, 물길 연계 등 수원 확보 및 논과 맞닿은 필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다른 농민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지역의 휴경지(논)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5) 경남다랑논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www.darangnet.com/>)

이에 다랑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라씨앗드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 또한 다랑논의 가치와 토종벼, 친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활동을 추진하여야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다랑논 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마을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던 중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운영위원회에 아라씨앗드리의 주요 구성원과 대신·대촌마을 이장 및 주민들까지 포함시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랑논과 관련된 마을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사업 내용에 관해서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모임과 회의를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아라씨앗드리 활동이 주민들에게 공유되고, 주민들 또한 사례지 견학과 토종벼 해설사 교육 등 역량강화에 참여하였다. 지원을 통해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의 규모를 이어갈 수 있었고, 또 확대하여 함안농요보존회와 함께 손모내기과 추수 한마당 등을 진행하였다.

아라씨앗드리의 농촌경관 보전활동은 2011년부터 10여년간 지속해 온 안정적인 경제 기반(꾸러미사업)에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의 제안이라는 외부 자금이 매개가 되어 시작되었다. 특히 구성원들 간 토종씨앗 보전, 친환경농업 등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었기에 다랑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또한,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보전하는 농촌경관의 영역을 확대시켜갔다. ‘경남다랑논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토종벼 씨앗 보전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의 내용(토종벼 다랑논 경작)도 다양화하였다. 그리고 자체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과도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다랑논 공유프로젝트를 현재까지 지속하였다. 특히, 활동의 범위를 넘어 활동의 주체까지 다양화하였는데, 2023년 추진한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사업’에서 사업의 이해관계자를 아라씨앗드리뿐만 아니라 이장을 포함한 기존 마을공동체까지 포함하며 농촌경관 보전활동의 주체를 확대시켜갔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지역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농촌경관 보전활동을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여항산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아라씨앗드리공동체영농조합법인’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활동 추진 과정을 조사, 분석하여 주민이 주체가 된 농촌경관 보전활동이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을 규명하고 주민 주체의 농촌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라씨앗드리가 주민 주도의 농촌경관 보전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보전 활동을 추진하기 이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던 점이다. 농촌경관 보전활동은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농업은 경제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남해 가천마을 사례와 같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부재한 보전활동은 장기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아라씨앗드리는 꾸러미사업으로 소규모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농촌경관 보전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공동체 내부에서 농촌경관 보전에 대한 목적의식이 공동의 가치관으로 공유되고 있었던 점과 공동체 내부의 역량을 구성원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다. 아라씨앗드리의 구성원은 꾸러미사업을 추진하며 받은 역량강화교육과 경험을 통해 농촌경관 보전이라는 공동의 가치관을 지닐 수 있었으며, 이는 다량농 보전 활동을 지속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원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구성원들의 역량의 범위 안에서 진행하였다. 꾸러미사업과 다량농 공유 프로젝트 등 아라씨앗드리의 기존 활동을 지속하며 토종벼 종자 도입,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대 등 공동체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공동체이나 토종씨앗 보전, 친환경농업 등 농촌경관 보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공동의 가치관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구성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관련 경험을 통해 전통농업과 농촌경관 보전 의식이 점차 확립되었다.

세 번째, 마을주민, 관련 단체, 행정 등 다양한 연계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함안여성농민회, 외암초등학교 학부모회, 대산 및 대촌마을 등의 단체를 프로그램 참여에서부터 사업주체로 유입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경남다량논네트워크’와 같이 지역을 넘어 유사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활동 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경험하고 지원을 통해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였다.

네 번째, 구성원의 의식과 역량을 고려하여, 활동을 구성하고 지원사업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키맨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라씨앗드리에서 키맨 역할은 사무국장이었다. 사무국장은 여항면에서는 여성 소농이 토종씨앗 작물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적합하다는 것을 도출해 최초의 꾸러미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공동의 가치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활동인 ‘다량농 공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구성원의 역량 범위 안에서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사무국장의 역할은 아라씨앗드리가 구성되기 이전에 주민설문 및 토종씨앗 조사, 마을수로청소 등을 통한 주민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민 주도의 농촌경관 보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조직의 경제적인 지속가능성, 공동의 가치관 공유, 구성원들 간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고, 지역 내외부의 주민, 단체, 행정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농촌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한정된 사례조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다른 유형의 공동체 추가 조사를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Gyeongnam Institute, 2021, A study on how to revitalize terraced rice fields in Gyeongsangnam-do, Current issue research, 2021-11.
2. Gyeongsangnamdo, 2022, Gyeongnam Darang Rice Field Research Service.
3.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2,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e Rural Utopia Project to fulfill the Government's New Deal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9, Take care of the environment-friendly by using the rest area and green manure crops. Press Releases.
5. Sunwoo, Y. J., 2018,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in China and Japan, WORLD AGRICULTURE, 218: 89-117.
6. Korean Rural Economic Institute, 2005, Current Condition of abandoned or Idle Farm Land and Policy Direction.
7. Korean Rural Economic Institute, 2020,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rural spatial planning, The 26th Rural Area Policy Forum Materials.
8. Hwang, H. C.&Go, Y.B., 2007, An Analysis on the Structural Changes of Rural Land Use According to Urbaniz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3(2) : 85-92.
9. Estacio, I., Basu, M., Sianipar, C. P.M., Onitsuka, K., Hoshino, S., 2022, Dynamics of land cover transitions

- and agricultural abandonment in a mountainous agricultural landscape: Case of Ifugao rice terraces, Philippin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22: 104394.
10. Levers, C., 2018, Spatial variation in determinants of agricultural land abandonment in Europe,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644: 95-111.
 11. Kim, D. H., 2022, A Preservation of Traditional Landscape through Co-Prosperity in Local Communities - In Case of “Terraced Paddy Fields of Gacheon Village, Namhae”, Scenic Site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40(2): 14-23.
 12. Kim, H. J., 2011, A Study on “Indigenous Seed Preservation Movement ” in South Korea: based on Indigenous Knowledge of Peasnat Women,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1(2): 263-300.
 13. Park, J. W.&Lee, Y. J., 2017, A Case Study on Rural Landscape Management based 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Osaka Prefecture,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3(1): 165-174.
 14. Jeong, S. J, 2015, [Village landscape project implementation status and problem improvement plan] Residents’ concerns, efforts, and communication are more important than the plan. *Monthly resident autonomy*, 43: 41-47.
 15. Chong, E. J.&Hur, N. H.&Kim, H. J., 2011, Women and the Polit
 16. ics of Place through the Space of Kitchen Garden: ‘Sisters’ kitchen garden’ project of the Korean Women Peasant Association,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1(2): 301-344.
 17. Moon, M. K., 2023, A Study on the community Revitalization Plan Based on Local Assets, Ph.D diss., Hanyang University.ina. *Ecological Indicators* 145:109-625.
 18. <https://blog.naver.com/darangnon>
 19. <https://www.darangnet.com>
 20. <https://sistersgarden.org/>

-
- Received 10 May 2024
 - Finally Revised 13 June 2024
 - Accepted 15 June 2024